



# 東國大同憲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1년 (불기 2563년) 10월 1일 (금)

<http://dongguk.or.kr>

제257호

## 삼보의 언덕에 올려퍼진 동국의 혼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우리의 어두움 밝히노니”

### 동국의 영원한 노래 교가(校歌)를 알아보다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  
한 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우리의 어두움 밝히노니  
우리보라 진리의 동산  
학문의 성화 높이 들렸다.  
가슴마다 높푸른 이상  
오직 의기에 찬 젊은 모습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서울캠퍼스 명진관(석조관)의 야경

몸은 떠나도 교가는 혈맥 속에 관류한다. 동국의 건학 정신과 긍지와 자부심이 묻어나는 상징인 교가. 개교 기념식은 물론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동창회 모임 때마다 장엄하게 올려 퍼지는 동국의 노래는 동국인 모두의 혈맥 속에 파동친다. 동국의 혼이 관류한다.

우리 대학의 교가는 첫 개교 때부터 세 번의 교체가 있었다. 명진학교-중앙불교전문학교-혜화전문학교-동국대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시대에 맞는 교가가 제정되었다.

명진학교 시절 교가는 없었고, 중앙불전 시절 최초의 교가가 제정되었다. 기미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육당 최남선 선생이 작사한 “大界가 다 한가지 동방을 볼 때, 하고 한 빛이 서려 거기 넘치네 우리 불교전문학교 구원의 힘 구원의 빛”으로 끝나는 노래다. 최남선 선생은 당시 모교에서 조선종교사와 조선어학 강의를 맡고 있었다.

두 번째 교가는 혜화전문학교에서 동국대학교로 교명이 바뀐 1946년 이후 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정인보 선

생이 작사하고 김성태 선생이 작곡했다. 이 교가는 “젊은 피 뛰는 소리 하늘 울린다 백두산 동해물을 예서 빛내어 이 나라 이 겨레의 복터 되거라”라고 학생들의 웅혼한 기상을 고무했다.

세 번째 교가는 오늘날 불려지고 있는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 한 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으로 시작되는 노래다. 불교정신과 젊은이의 기개와 자부심이 융솟음치는 힘찬 노래다. 1964년 시조시인 이은상 선생이 작사하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했다.

이 교가는 당시 동대신문 기자였던 이구용(62영문과, 미국 거주) 동문이 김법린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은상 선생과 김동진 교수 맥을 오가며 원고를 받아온 일화가 남아 있다.

세 번의 교가 변화의 과정을 겪었어도 교가에 담겨있는 뜻은 동국인의 기상과 웅비, 실천하는 지성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관련 기사 10-11면〉

### '2021 동국인의 밤 행사 안내

- 일시 : 2021년 12월 2일 (목) 18:30
- 장소 :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볼룸
- 내용 : ① 의식행사 / 영상 메세지  
②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  
③ 만찬 및 문화공연
- 문의 : 02-733-0302, 0303 (사무처)

2021년 10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시도 '찾아가는 졸업식' 화제

서울캠 1,468명 · 경주캠 455명 학위 수여



▲ 찾아가는 졸업식을 통해 학위를 받는 이선준(의생명공학15) 동문.

모교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이 8월19일 (목) 오전 10시, 코로나19 4단계로 공식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사전에 촬영 제작한 동영상 상을 유튜브로 중계했다. 학위수여 인원은 박사 99명, 석사 215명, 학사 1,154명 등 총 1,468명이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우리 총동창회 신입 회원으로 입회하는 후배 여러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동국에서 쌓아올린 우정과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버팀목이 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자”고 격려했다.

윤성이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여러분은 대학생생활을 콘택트로 시작해 언택트로 마무리한 세대다. 이런 경험으로, 더욱 확대될 비대면 사회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선도자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눈앞의 이익보다 오래도록 지속될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라. 감사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직, 신뢰, 성실, 희생의 가치는 여러분을 한층 더 빛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스님은 “오늘 졸업의 영광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타인뿐만 아니라 일체 존재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기를 바란다”라며 “그동안 동국대학교에서 같고 님은 지혜와 자비의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남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멋진 동국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측은 졸업생을 위해 8월18일부터 8월29일(일)까지 야외 포토존을 운영했다.

모교는 비대면 학위수여식을 아쉬워하는 졸업생들을 위해 최초로 <찾아가는 학위수여식>을 시도해 화제를 모았다.

윤성이 총장과 단과대학(원)장이 졸업생을 찾아가 학위기와 학위복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로 학위수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다. 총 5명을 선정해 8월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이틀간 졸업생이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 ‘맞춤형 학위수여식’을 선물한 것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2021년 가을 학위수여식’은 8월 20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거행됐다. 학위수여 인원은 학사 366명, 석사 83명, 박사 6명 등 총 455명이다

# 제2건학 목표 달성 “한마음, 한뜻”

문선배 상임부회장 후원금 5천만원 기탁



▲ 동국대를 대한민국 상위권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건학위원장 자승스님.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8월 18일(수) 봉은사(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있는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위원장 자승스님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학위원회가 동국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산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총동창회에서도 동문들과 소통 공감하여 건학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 동국대학교는 동창회관이 없는 유일한 대학으로 이는 모교의 대외적 이미지와 동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에서 총동창회가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추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또한 재가 법인이사를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좋겠다.”며 35만 동문들의 뜻을 전달했다.

건학위원장 자승스님은 “종립학교의 의미를 잘 살리고 후원금을 확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재학생 전원이 장학금을 지원받아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피고, 이러한 인연으로 졸업한 후에는 모교와 후배를 위해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 향후

10년 이내에 동국대학교가 대한민국 상위권 대학의 자리를 확고히 차지할 수 있도록 나부터 모범을 보이며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선배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은 동국중흥을 위해 써달라면서 5천만원을 건학위원회에 기탁했다.

본회에서는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조덕형 경주직할동문회장, 김환배 상임부회장, 문선배 상임부회장, 임선기 사무총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 동행라이온스클럽 장학금 수여 모교 재학생 등 8명에게

매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 홍종표, 행대원94, 대원인터내셔널 대표)이 7월 26일 총동창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지구 회장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장학금은 흥은택 STX그룹 부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흥은택 부회장은 “총동창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신리바이오틱스 2,000통을 본회에 기증해왔다.

TWOHIM  
*Birdie Buddy*

**경사보정 모드!  
핀시커 모드!  
측정단위 변환!**

www.twohim.com  
**NAVER** 투힘 버디버디

**네이버 가격비교 1위!**

**가성비 골프거리측정기!  
고객선물용 강력추천!**

☎ 대량주문 031-309-0878

**84학번 동막골  
공식 거리측정기**

**▶ 파격가 109,900원**



## 제29대 총동창회 첫 상임위원회

동국장학위원회도 정착 앞장서기로



▲ 본회는 제29대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래 총동창회를 위한 액션플랜 등을 공유했다.

제29대 총동창회가 새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7일 저녁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박대신 회장은 상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미래 총동창회를 위해서 60학번대의 양해를 구해 70학번대와 80학번대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29대 상임위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건으로는 △상임위원 위촉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건 △(재)동국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관한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임선기 사무총장은 현안 업무 보고를 통해 미래 동창회 중심세대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0학번대와 90학번대

동문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총동창회 운영의 핵심으로서 과거의 전통 위에 미래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후배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동국장학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장학위원 제도를 정착시켜 나아가는데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29대 첫 상임위원회는 4월초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연기를 거듭하다가 어렵사리 출발한 만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동창회 활동과 온라인 소통 홍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동문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것을 다짐했다.

## 세종시지부 사무실 개소식

시내 중심가 디펠리체 빌딩 40여평 규모



▲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세종지부 개소식에 참석하여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협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총동창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개소식이 지난 8월 27일 세종시 나성동 대창 디펠리체빌딩 1동 904호실에서 임태진 세종시지부 회장, 박대신 총동창회장, 최응렬 모교 경찰사법대학원장, 윤명성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등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소식에서 임태진 세종시지부 회장은 “세종시가 신생도시인데다 젊은 동문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특색이 있고, 각 부처 행정청사에 많은 동문들이 들어와 있어 이들을 세종시지부에서 받아들여 동문사회의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는 구심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동문 리스트를 확보하는대로 유대를 강화하는 행사

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세종시지부가 임태진 회장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하고 총동창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세종시지부는 시내 중심가 디펠리체 빌딩에 40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두고 본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세종시지부는 개소식에 이어 다과회를 갖고 지부 발전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계홍(65국문) 동문 등이 참여했으며, 총동창회에서는 임선기 사무총장, 김찬욱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국어국문학과 동창회장에 김택근 동문

국어국문학과 동창회(회장 김금용)는 최근 신임 회장에 김택근(75학번, 前 경향신문 논설위원) 동문을 추대했다.

신임 김택근 회장은 “코로나19로 모임이 여의치 못해 아쉬움이 크다 위드코로

나 시대를 대비해 조직강화와 후배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총무에는 김일환(93학번, 모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동문이 맡았다.

## 경제학과, 제1회 경제 특강 개최

동문 강사진으로 ‘재학습의 장’ 마련

경제학교동창회(회장 오수환)는 제1회 경제특강을 9월11일 오후 2시부터 모교 경영관 L304강의실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화상강의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사회, 경제, 과학의 변화 속에서 단순한 학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해오고 있는 동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오수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동문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문간 교류와 재학습의 장으로 기획된 행사인 만큼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웨백스 URL을 통하여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유

튜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각 분야별로 5명의 동문이 강의를 맡았으며, 강사 및 주제는 아래와 같다.

△제1강의 : 송일호(79학번, 모교 명예교수, 경제학교동창회 직전 회장) = 동국대 경제학과 현황 및 발전 방향

△제2강의 : 정 윤(79학번, 메르츠증권 이사) = 한국 주식시장의 실태와 접근 방향

△제3강의 : 서세욱(84학번,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심의관) =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재정과정

△제4강의 : 이판우(89학번, 신한은행 동국대지점장) = 알아두면 유용하고 쓸모있는 은행거래

△제5강의 : 공광길(89학번,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전망

## “사무실이 동문 사랑방 될 것”

### 세종시지부장 임태진 동문



총동창회 세종시지부 임태진(18경찰사법대학원) 회장은 “세종시 일원에 동국대 동문들이 의외로 숫자가 많다는 점에 놀랐다. 이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어서 지부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들어 서있는 종합 행정청사에 동문들이 많다는 데 더 놀랐다는 것.

임 회장은 모교 경찰사법대학원 재학 중 총학생회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동문회원을 모으겠다는 포부다.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 현재 총동창회 인명록과 자체 동문회원 점검 결과, 세종시에 250명의 동문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다. 이중 120명을 이미 확인했다고 한다.

“대학원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자 해서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그 후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박사과정 2학기 짜인데, 재학생들

끼리 단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회장은 리더십과 소통력, 추진력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재정 부담은 물론 조직의 애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데서 온 덕목으로 보인다. 세종시지부 사무실도 그가 직접 사재를 털어 세종시 도심의 빌딩에 40평짜리를 마련했다. 이곳에 이 지역 동문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학부 출신은 아니지만, 애교심 또한 남다르다. 그는 “총동창회가 학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라면서 유능한 동문들이 석박사 과정에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코로나 시대 모두가 살기 힘들고, 모이는 것 또한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나가면 조직 기반이 탄탄해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지부는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교 역할을 다하면 아마도 총동창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조직체가 될 것입니다.”

경찰사법대학원에서 범죄심리학을 전공했고,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심리적 지시, 암시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다. 어려서부터 경찰을 꿈꾸었으나 직접 경찰이 되지 못한 반면에 학자적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

# 본회 고문단 총 58명 추대 ... 신규 4명

본회 발전에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고문단이 9월7일 상임위원회 추천을 거쳐 58명이 추대됐다. 이번 고문단은 작고하신 △정재철(정치49)

△황명수(정치49) △이석용(정치54) △선진규(불교55) △이태근(정치56) △정상영(법학56) 고문을 대신하여 △김용정(철학56) △이화일(상학61) △법타스님

(인철61) △김진선(행정71) 동문 등 4명을 신규 고문으로 추대했다.

(학번, 성명 가다다순)



권노갑 (경제49)  
前 국회의원



이태영 (사학51)  
前 호남대 총장



이민휘 (정치52)  
Train Works 회장



류주형 (농학53)  
인성개발 회장



인준식 (경제53)  
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순표 (농학53)  
세스코 회장



이상현 (경제54)  
상경물산 회장



박중환 (경제55)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윤형두 (법학55)  
범우사 회장



이상운 (정치55)  
삼영기업 회장



김용정 (철학56)  
前 모교 부총장



김희형 (정치56)  
(사)해외한민족연구소 감사



박종운 (경제56)  
세창 회장



임덕규 (법학56)  
디플로머시 회장



김재경 (경제57)  
동보 대표이사



박준형 (경제57)  
신라교역 회장



심경모 (영문57)  
서정연구소 대표



최형우 (정치57)  
前 내무부 장관



김성재 (정치58)  
경주중앙청과 회장



김종규 (경제58)  
삼성출판박물관장



배시영 (경제58)  
한미민주연합회 회장



송석구 (철학58)  
前 모교 총장



홍치유 (물리58)  
前 모교 부총장



권오춘 (영문59)  
모교 석좌교수



라동영 (불교59)  
4.19혁명동지회 회장



원용선 (영문59)  
남양이앤씨 회장



전운덕 (경제59)  
대한불교천태종 대종사



조희형 (경영59)  
모교 명예교수



김행남 (정치61)  
예비역 육군소장



백경남 (정치61)  
前 여성위원장



신윤표 (행정61)  
前 한남대학교 총장



이화일 (상학61)  
조선내화 회장



홍영준 (불교61)  
前 SK에너지 대표이사



문효치 (국문62)  
前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창규 (경영62)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이황우 (경영63)  
모교 명예교수



한우삼 (농학63)  
태양금속공업 회장



홍파스님 (불교63)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김진문 (경영64)  
신성약품 대표이사



명성스님 (불교64)  
청도문문사 회주



서영준 (법학64)  
동양 회장



송석환 (농경64)  
동진기업 회장



윤탄스님 (불교64)  
법주사 회주



자광스님 (인철64)  
前 동국대학교 이사장



조은구 (경제64)  
동양에스텍 대표이사



조창현 (경영64)  
예비역 육군소장



최상철 (경영64)  
파인글로벌 대표이사



현해스님 (불교64)  
월정사 회주



전영화 (경영65)  
옥토그린 대표



법타스님 (인철67)  
조계종 원로의원



김희욱 (법학68)  
KBL총재



김진선(행정71)  
前 강원도지사



보광스님(불교71)  
前 모교 총장



일면스님(승가75)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성우스님(승가77)  
동국대학교 이사장



윤성이(농경 83)  
모교 총장



이기홍(불대원12)  
대한체육회 회장



수불스님(대학원17)  
안국선원장

# 본회 상임위원 총 24명 · 비상임위원 16명 위촉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29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7일 제1차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상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상임위원회는 본부동창회의 상임위원과 지역담당 비상임위원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상임위원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상임

위원회에 참석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출할 의안, 기본 운영 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 등 총동창회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미래 동창회 중심 세대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0학번대와 90학번대 동문들을 주축으로 구성했다.

이는 실질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나온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미래의 동창회를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찾아가는 동창회를 통해 동문조직을 활성화하고 동문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 위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담당 위원들도 위촉했다.

박회장은 위촉 서신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모교 개교 115주년과 총동창회 창립 103주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는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해 온 선배들의 열정과 발자취가 담겨 있기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어려운 난관을 함께 극복하여 빛나는 동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상임위원 (상임부회장)



이경석 (도시공학67)  
원색건설 고문



김환배 (연료공학68)  
풍년 회장



오정석 (농학72)  
동원주류판매 대표이사



김진익 (경영73)  
우진INS 상임감사



허창식 (영문75)  
원스 대표이사



김애주 (영문76)  
모교 대외협력처장



송일석 (미술76)  
케이엔티정보기술 대표이사



공명대 (화학78)  
모교 화학과 교수



권준명 (임학78)  
무궁화신탁 사장



김문선 (전자79)  
다물시스텍 대표이사



최대식 (회계79)  
K&C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계문 (산공80)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인석 (전자80)  
드론농부협동조합 대표



윤미정 (수교81)  
MJ잉글리쉬 대표이사



윤재민 (사학81)  
도서출판 범우사 대표



임금동 (경영81)  
한세상사 대표



조중미 (교육81)  
허준마을 작은도서관 관장



중호선 (선학81)  
모교 기획부총장



김종필 (행정82)  
내일신문 이사



박태선 (농학82)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김태현 (불교84)  
법무법인 창조 실장



차연신 (연영85)  
와이에스피엠씨 대표이사



홍종표 (행대원94)  
대원인터내셔널 대표



문선배 (경대원17)  
신화종합건설 회장

## 비상임위원 (지역담당)



조덕형 (조경84)  
경주직할동창회장



공석돈 (회계79)  
경주지역



박진운 (경영65)  
부산동창회장



박종수 (인도철학72)  
부산지역



정중식 (공경76)  
부산지역



김용수 (영문73)  
인천동창회장



손기범 (행대원91)  
대구경북동창회장



김종욱 (행정71)  
대전충남동창회장



고천석 (정외76)  
광주전남동창회장



임태진 (경대원18)  
세종동창회장



김희배 (공경81)  
경남동창회장



장세균 (철학67)  
전주전북동창회장



이덕수 (법학75)  
춘천강원동창회장



이병선 (사학82)  
강원, 前 속초시장



정군섭 (경영96)  
포항지역



김석만 (사대원89)  
사회과학대학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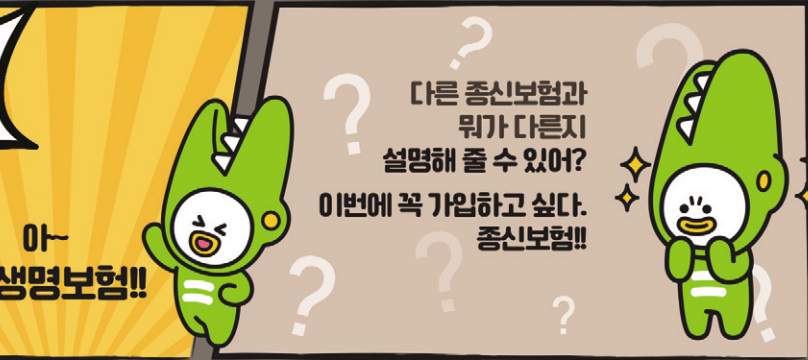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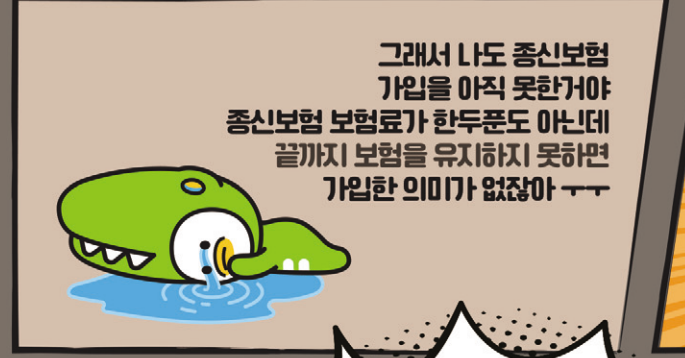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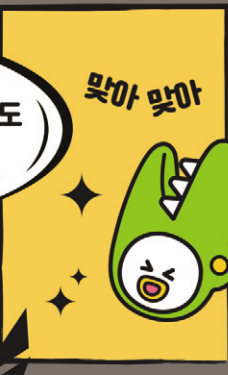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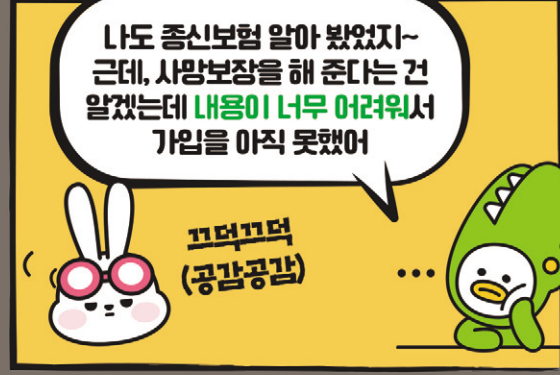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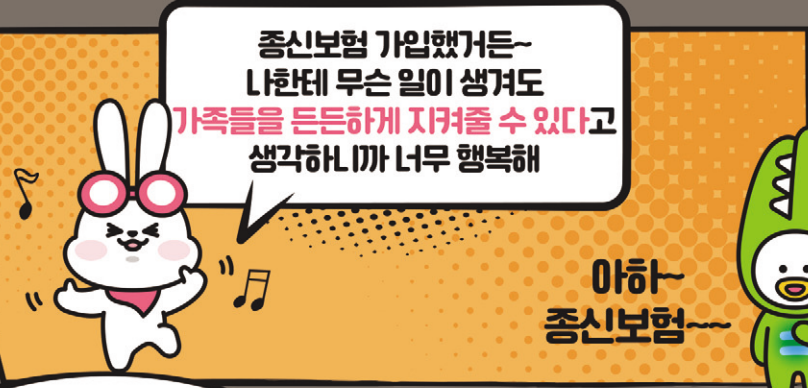
“35만 동문이 힘을 모으면 동국대학교와 동국인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KB금융그룹 국민이 평생을 함께할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생명보험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종신보험 이야기



**무배당 KB, 알기쉬운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

- 1. 보험가입 초기 높은 해지환급률**  
1년 이후 90%의 해지환급률 보장(2형(메타추구형) 가입 시)\*
- 2. 긴급자금 필요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해지 없이 자금활용 가능**  
연금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자금 활용도 가능(연금전환특약 가입 시)\*\*
- 3. 누구나 알기 쉽고 유지하기도 쉬운 단순한 상품구조**  
가입시점에 해지환급률 확정, 성별,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 환급률
- 4. 60세 이상도!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 가능**  
2종(간편심사형) 선택 시 가입가능, 인수조건에 따라 가입거절 가능\*\*\*

\* 2형(메타추구형): 보험료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고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 누계금액 X 90%+기산적립금)  
\*\* [연금전환특약] [라이프사이클연금전환특약] 조건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단, 연금전환 시 전환 전 보장 및 기능 등은 소멸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종(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심사보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형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 시점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불교 천태종 대종사 운덕스님

## 26년 총무원장 재임 중 160여 사찰 짓다

상월원각 대조사 만나 '구도의 길'  
신도 300만, 한국 불교 양대 종단으로  
본교 ROTC 1기 - 경제학과 출신

충북 단양군 영춘면 소백산 자락에 자리잡은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수려한 산세를 끼고 산 밑에서부터 800고지에 이르기까지 사찰건물이 산 기슭 양쪽에 빼곡이 들어차 있다. 자그마치 60여동 쯤 되어보인다. 웅장한 대웅전을 비롯해 각 건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사찰 건물을 대부분 짓고 한국불교 양대 종단으로 키운 주인공이 있다.

운덕 대종사 스님(속명 전종윤 · 84세)이다. 동국대 경제과 59학번 출신이다. 그는 ROTC 1기 출신으로 육군 중위로 예편한 뒤 구인사 상월원각 대조사를 찾아 계를 받아 승려가 되었다. 그후 천태종 총무원장직을 6연임하면서 26년간 천태종을 우리나라 불교의 양대 종단으로 키웠다.

운덕 대종사를 첫 대면하자 스님의 귀가 유독 커서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노안의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이다. 요즘 다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 보일 뿐, 건강한 모습이다.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도를 닦은 수행의 효험으로 보였다.

다음은 전운덕 대종사와의 일문일답.

- 불가에 들어와 수계 받으신 사연부터 말씀해주시지요.

“1962년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소위로 임관하자 28사단에 배치되었지요. 1965년 제대하고 잠시 고향을 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예비사단에서 한달간 훈련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66년 안동 36사단에 들어가 훈련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구인사를 찾은 것은 그곳에 '생불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석같이 이상한 끌림이 있어서 훈련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구인사를 찾은 것입니다. 나는 대학 재학시절, 경제과를 다니긴 했어도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 강의를 많이 듣고 불경에도 관심을 가졌었지요. 경제과를 지망한 것은 '경제제민'이라고 경제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돈벌고, 기업에 취직하는 내용이 주더군요. 내 생각과 달라서 불교공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구인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스님을 만나자 운덕 스님은 순간적으로 “이거다” 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섰다. 맑고 깨끗한 모습의 상월원각 대조사는 흡사 산신령처럼 느껴졌다.

“대종사 스님이 어떻게 왔느냐 물으시더군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여기 구인사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기도하다 나가려니 했는데, 7일째 되는날 새벽 어떤 환상을 보면서 전율할 정도로 오도(悟道)의 정기를 느꼈습니다. 마음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길로 머리를 깎겠다고 했습니다. 대조사 스님께서 '운덕'이란 법명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산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세속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어언 55년이 되었군요.”



- 그렇다면 천태종은 어떤 종교입니까.

“에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합니다. 주경야전을 실천하며 대중생활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무상하니 집착이 무의미하다는 △제행무상을 비롯해, △제법무아(모든 법에는 내가 없다) △열반적정(욕심 버리고,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라)이라는 3법을 지키지요. 천태종의 절은 산중이 아니라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구인사는 대한불교천태종의 총본산이다. 1600년 전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에 의해 개립(開立)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이 개창(開創)했다. 조선조의 억불 정책으로 소멸의 과정에 든 것을 중창조(重創)인 상월원각 대조사가 1945년 현재의 5층 대법당 자리에 초가삼간을 지어 수행하면서 중창(重創)하고, 운덕 대종사가 1966년부터 원력을 쌓아 오늘에 이르렀다.

전국 신도 수는 약 300만명. 스님은 450여명이다.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분당 대광사, 대구 대성사와 동대사, 인천 황룡사, 대전 광수사, 광주 금강사, 울산 정광사 등 전국의 유명사찰 200여개소를 두고 있다. 이들 중 160개 사찰 건물을 운덕 대종사가 다 지었다.

구인사의 대표적인 건물은 설법보전, 관음전, 대조사전, 총무원 청사, 광명전 등이다. 이중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존상을 봉안한 대조사전은 사찰건물군의 맨 위에 세워져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3층이지만 내부는 지붕까지 탁 트인 통층 구조로 되어 일반 건물의 7층 높다. 내외장이 금박으로 장식돼 화려하고 장중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약 10년간의 불사로 2000년 11월 낙성되어 많은 순례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대조사전 역시 운덕 스님의 원력이 그대로 스며있다.

- 북한에도 천태종 불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 개성에 본래 있었던 영통사 자리에서 복원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쟁 때 완전 파괴되어 터만 남은 자리에 2000년 11월 현지 조사 후 북한의 조선경제협력위원회와 함께 복원 불사를 시작해 2005년 10월 남북 공동으로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이 문중 중심으로 조직된 것과는 반대로 천태종은 조직 체계가 로마 카톨릭 교황청처럼 종정-총무원장 휘하의 단일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일사불란의 정신 아래 교세 확장의 바람을 몰아가고 있다.

천태종은 개인적으로 사찰을 창건하지 않는다고 한다. 타 종단처럼 스님이나 재력있는 불자가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시키는 경우가 없이, 오직 총무원 주관으로 불사를 하여 주지스님을 파견한다. 그중 부산의 삼광사는 신도수가 50만명에 이른다. 한국의 대표적 사찰인 범어사보다 신도 수가 7-8배나 된다.

- 이렇게 천태종을 키운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 중에 나와 같은 장교 출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병장교 출신인데, 정확한 수치와 과학적 계산, 체계적인 조직력이 몸에 배어있지요.”

이에 대해 배석한 운덕스님의 재가 상좌격인 주철수 법사(ROTC21기)는 “스님은 따뜻한 리더십, 공평무사한 일처리, 솔선수범하는 실천력이 큰 불사를 이룬 원동력”이라고 소개했다.

- 모교를 다니시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신다면...

“경제원론을 가르치던 홍우 교수님이 강의 중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라서 부국강병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재 자원'도 '부국 자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중 상월원각 대조사 스님의 예언에서도 적중했지요”(그는 상월원각 대조사의 예언적 설법을 여러가지 소개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 “ROTC에 지원한 것은 동기생인 박준형(신라교역회장) 동문이 한사코 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구 부잣집 아들인데, 날더러 쪽팔리는 사병으로 입대하느니 장교로 가라고 하더군요. 이화동에서 하숙을 하며 고기반찬이 아니면 밥을 안먹을 정도로 유복하게 지내던 친구의 진지한 권유가 힘이 되었지요. 그래서 ROTC 응시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왜 ROTC 지원하느냐'고 질문하자 박 동문의 권유가 생각나서 '기왕 국방의무를 수행하려면 졸업은 시시해서 가고 싶지 않고, 기왕이면 지휘관이 되기 위해 장교 지망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두말없이 '알았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다른 학생들은 '나라의 간성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어찌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상투적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품격과 권위가 묻어나면서도 자상함과 친절이 몸에 배었다. 음식점에서 일일이 후배들에게 매운탕을 접시에 담아 전달하고, 스스럼없이 막걸리를 권하는 모습이 다른 종교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탈 권위적이지만 오히려 따뜻한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것 같다. 이런 자세가 큰 불사를 완성하고, 교세를 확장한 힘이 아닌가 싶다. 신화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이계홍 <국문65 ·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NH농협캐피탈



## 시소몰은 기업과 직장인을 위한 디지털 제품 전문 쇼핑몰입니다



### PC/노트북

데스크탑, 노트북, 모니터  
조립PC, 프린터/복합기  
PC 소모품 등



### 부품/주변기기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HDD/SSD  
PC 주변기기 등



### 가전/디지털

대형가전, 생활가전  
계절가전, 휴대폰/태블릿  
디지털 악세서리 등



### 서버/네트워크

운영체제, 서버/스토리지  
공유기/케이블, UPS  
전기/통신자재 등



### 카카오채널

QR코드 찍고  
특가소식 받아보세요!



### 시소몰

www.seesawmall.com  
고객만족센터 1811-9366

시소몰을 검색해보세요!





## 삼진식품(주) 회장 박종수 동문

## “바른 먹거리로 최종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치 제공”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부산역 한 매장서 하루 7천만원 매출  
뜨거운 야구 응원전 추억으로 남아

‘삼진어묵’ 하면 대한민국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안다. 반찬용과 꼬치용의 어묵.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제품의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그래서 아이들 도시락 반찬에서 지금은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쉽게 구입해 대중식사처럼 먹을 수 있게 진화한 식품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를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로 키운 이가 인도철학과 72학번 박종수 동문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부산역에 도착하자 박 회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 자상하고 인자한 모습이다. 회장으로서의 위상을 말해주기보다 사람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이다. 그의 안내로 부산역 옆 삼진어묵 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층의 드넓은 홀의 한켠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묵이 탁자에 올라 하나하나 맛을 보는데, 하나같이 구수하고, 맛이 깊었다.

– 자료를 통해 삼진식품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살펴 보았습니다만, ‘삼진어묵’이 브랜드화돼 있더군요. 삼진어묵 역사부터 소개해주시지요.

“삼진어묵은 1953년부터 3대에 걸쳐 이어져온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어묵 브랜드입니다. 1953년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자 값싼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친(1대 박재덕 회장)께서 영도의 공동어시장 한켠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덴뿌라와 오뎅용으로 어묵을 만들었다. 사용된 재료는 명태 조기 갈치와 잡어 등이었다. 선친의 사업 목표는 가장 좋은 재료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양보충을 충분히 하도록 해주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날 들어온 물고기를 쓰기 위해 영도시장에 공장을 차렸다.

“유년시절부터 소년시절까지 어묵공장에서 지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부모님을 따라 어묵을 만들었지요. 낱생선을 대형 믹서기에 넣어 갈아서 반죽된 재료를 가지고 동그랑땡, 사각형 오뎅을 만드는데 소년시절부터 일손을 거든 것입니다. 어묵공장 2층이 안집이었으니 공장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았다고 봐야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생산 공장 설비를 확장하고 품질도 고급화했다.

“초창기엔 물고기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전체를 어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뼈가 씹히는 맛이 있었지요. 굵주리던 시절에는 씹히는 맛이 나는 어묵이 통용되었습니다. 사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통째로 갈아서 어묵을 만들면 고소한 맛이 더 나지요. 하지만 입맛이 고급스러워지고, 까다로워지면서 살코기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중기로 널리 소문이 나다보니 거래선이 일기장에 반장 정도 채워치던 것이 얼마 안가서 한 장으로 늘어나고, 그 얼마 후에는 두장 석장 씩 늘어났다. 따로 영업직을 둔 것도 아닌데, 어연간에 시내 점포에 몇 백상자 어묵을 공급하는 일이 생겼다.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것을 제일 모토로 했다.



광어를 쓰고 명태를 주재료로 사용했다. 수년내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니 비싼 알래스카산 명태를 수입해 쓴다. 이러한 사이 매출 20억원 규모를 자랑하는 상황이 되었다.

“좋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광어를 양식하는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하림이 통닭을 보름만에 공급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영양 풍부한 성어로 빨리 길러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영업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다. 경쟁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대기업 식품 회사들이 백화점에 진출해 어묵 시장을 장악하자 선친과 큰형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렀다. 대림, 동원, 한성, 나중에 이름을 바꾼 CJ 등 대기업 어묵들이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급히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보기로는 어려서부터 제가 가장 부지런히 일했고, 회사 현실을 잘 안다고 보신 것이지요. 즉, 세 형제 중 공장 운영에 책임자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투입되어 기울어져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따서 엄마 맛이 나는 ‘이금복 어묵 세트’를 만들어 낸 것이 불티나게 팔렸으니까요.”

‘이금복 어묵 세트’는 어느새 삼진어묵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다시 기반을 잡자 공급이 달리기 시작했다. 영도구 봉래동의 영도공장을 신축하고, 2000년에는 같은 장소에 다시 공장을 확장하고, 2011년에는 사하구에 장림공장을 신축했다. 식약처가 공인하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등록되었다.

1986년 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박 회장은 종업원들과 24시간 함께 하는 생활을 했다. 가족처럼 한술밥을 먹었

다. 종업원과 경영진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환경이니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거래선이 대폭 확장되었다. 그 중 부산역에 점포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제품의 맛과 영양이 풍부하니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삼진어묵을 사갔다. 하루 매출이 7000만원이 되었던 적도 있다. 영수증 발급기 4대가 동원되어 한 대당 2000만원씩 찍어냈다.

매일 이렇게 설 틈 없이 일하다 보니 박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다시 위기가 왔다. 그는 미국 뉴욕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는 장남(박용준 현 대표이사)을 불러 현장 투입했다. 박용준 대표이사 사장은 본래 미국에서 회계사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박용준 대표가 한국에 들어온 2011년 경에는 어묵 산업이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채널은 대기업이 장악했고, 도매상과 전통 재래시장에 납품하는 작은 생산 공장은 그들끼리 경쟁이 치열해 시장 기능이 상실되는 환경이었다. 같은 목표와 같은 고객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니 갈수록 문제가 심각했다. 그 누구도 어묵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경쟁하는 처지에 어묵 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가격 경쟁뿐이었다. 이는 서로 죽자고 하는 일이었다.

이때 박용준 대표가 들어서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새롭게 체질 개선에 나섰다. 아들 박 대표는 도매상이나 대리점과 B2B로 해오던 거래를 B2C(기업과 소비자간의 직접 거래)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 최초로 어묵베이커리 사업을 펼쳤다. 이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7년에는 싱가포르점을 오픈하며 해외 진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 대학생활의 추억담을 얘기해보시지요.

“모교 야구팀 경기 때, 동대문 야구장에 나가 목청껏 응원하던 추억이 그립습니다. 김성한 선수 등 모교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던 시절입니다. 인도철학부에 입학한 것은 1지망이 떨어져서 2지망으로 간 결과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그래서 그런지 적성에 맞았어요. 이기영, 서경수, 원희범, 송석구 교수님 등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학생시위가 많았습니다. 시위대를 선도했지만 내가 날렵해서 잡히지 않았지요. 후문이 당시엔 정문이었는데, 후문 옆 흥탁집에서 막걸리깨나 마셨습니다. 체구가 작지만 술이 말술이었죠. 그곳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았지요.”

그런데 지금 그의 종교는 개신교다. 둘째형이 목사가 되어서 부득이 집안 식구들의 평화를 위해 개신교로 바꿨다는 것.

– 모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경쟁이 치열한 시대, 한 우물을 파되 1인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3년경 코스닥에 회사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와함께 종합식품회사로서 1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뉴욕 맨하튼에 지점을 두고, 유럽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다. 충청 지역에 공장 부지를 구입해 중부공장을 신축해 국내 1위의 아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을 계획이다.

이계홍 <국문65 ·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교이래 세차례 제정 | 최남선·정인보·이은상 등 당대 석학들이 작사 참여

## “진리의 동산에 학문의 성화 높이 들렸다”

‘삼보(三寶)의 언덕’이란 곧 불교정신을 모태로 태어난 동국대가 자리잡은 터전을 말한다. 삼보, 즉 불·법·승은 동국대의 창학정신을 나타낼 뿐 아니라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고 운행하는 섭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삼보의 언덕은 진리를 구현하고 실천봉행하는 힘의 집결지이자 지혜의 산실이다. 삼보의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사회는 무명에 잠겨 있다. 이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 요구되는 것은 미혹을 밝혀줄 한 줄기 빛이며, 이는 곧 ‘동국의 빛’이자 ‘학문의 성화’이다. 성화를 들고 누리의 어둠을 밝혀나가는 동국인들의 가슴은 ‘높푸른 이상’과 의기로 가득 차 있다. 굽힘없는 기백과 전통은 겨레와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국 100년사에서)

작사 이은상의 변

### 삼보의 터전에 새 역사를 겨레와 인류위해 원대한 이상 실현



시가(詩歌)에 무슨 해설이 필요한가. 시가는 그저 그대로 읊을 것이요 노래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저절로 가슴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고 새겨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서 족하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구태여 교가에 대한 해설을 가하고자 아니한다. 다만 교가를 지은 이로서 감히 붓을 들게된 경위와 아울러 교가의 가사 내용에 대한 나의 착안점이 무엇이었던가를 몇마디 피력하고자 할 따름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중에서도 ‘동국대학’이란 이름을 가장 사랑한다. 어딘지 그 이름속에는 이 나라의 이상과 전통이 꾸준히 든든히 박혀 있는 것만 같아서다.

‘東國’이란 동방민족의 자손인 우리들의 참된 모습과 긍지를 뚜렷이 바로 나타내보이는, 그리고 자기의 식에 가득찬 힘있고 무거운 이름인 것이 좋다.

그러한 동국대학의 교가를 내가 짓게 되다니! 더구나 역사적으로 보아서 최남선 선생이 첫 번째 교가를 지었고, 두 번째 교가는 정인보 선생이 지었다는데,

이번에 새로 지어야할 필요를 느껴서 세 번째로 작사자를 고른다는 것이 구태여 나를 지적한 것은 참으로 받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대학문 안에 내가 일찍 百代一人이라 일컬은 양주동 교수가 계시고, 또 당대의 대시인 서정주 교수를 비롯하여 문단의 명문장들이 수도룩한데 어느 겨를에 그런 영광스런 차례가 문밖에 까지 새어나올 수 있었던지? 이는 아마 梵山 김법린 총장의 편협한 우정 때문에 빚어진 그릇된 일이라. 우정이란 원래부터 이같이 편협한 것이 본색인지도 모르지만! 김총장은 내가 일찍부터 사귀어 진심으로 경외하는 선배 대학자요, 인격자요, 사상가인데다가 특히 왜정 때에는 이른바 한글학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같이했던 동지이기도 하다.

사상이란 무서운게지. 같은 사상으로 얽혀진 우정이란 그야말로 쇠라도 끊어낸다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민족의 얼을 죽았구나하고 얼싸안고 살아온 그것 한 점에 총장의 뜻과 내 뜻의 합치점이 있고, 또 그것이 바로 동국대학의 정신, 교수 학생 전원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결엔지 나머지 ‘동국’ 동지의 한사람이라도 된 듯 자기 재주와 학문의 부족을 헤아려보는 염치조차 잊어버리고 새 교가의 작사에 응졸한 붓을 던져본 것이다.

나는 첫째, 동국대학이 자리잡고 앉은 그 터전을 三寶의 언덕이라고 이름지어 보았다.

동국대학은 창학의 기본정신이 실로 이 삼보에 있었고, 또 삼보란 반드시 불교로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우주 인간의 대원리를 중시하는 대노선이면서 실천봉행하는 힘의 집결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삼보의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사회는 실로 어둠과 혼돈속에 잠겨있다. 그러기에 고해(苦海), 화택(火宅)이지.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광범한 의미로서 하는 말만은 아니다. 진실로 고난의 역사시대를 헤치고 가는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는 좀 더 뼈아픈 심정에서 하는 심각한 말이다

그러기에 그 혼돈한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한줄기의 눈부신 빛을 방사하여 ‘어둠의 무쇄장벽’(철원 무명세계)을 깨뜨려야겠다. 그 빛이 바로 동국의 빛이다. 삼보의 본원이다. 빛 중에서도 큰 광명이. 지혜 중에서도 ‘큰 지혜’고, 힘 가운데서도 ‘큰 힘’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국대학의 창학정신을

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순간 붓을 든 나의 생각은 한결음 앞으로 달려갔다. 이 삼보의 언덕이라는 이름지은 진리의 동산에는 동국의 빛이란 학문의 성화가 높이 들린 것이 눈에 보였다.

계계승승 오래 오래 가야할 험한 이기에 성화라는 어휘가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올림픽의 성화 모양으로. 그러나 나는 그 성화를 들고 선 주인공들의 얼굴이 더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높고 푸른 이상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그 굽힘없는 기운이 그들의 젊음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동국대학교 학생제군의 모습이야 한다. 기백이어야 한다. 전통이어야 한다. 자질구레한 글자 나부레기나 좇으러 다니는 것으로써 금옥보다도 더 귀한 젊은 시대를 보낼 수 없다. 교육은 결코 지식이나 전수한다는 값싼 거래는 아니다

인간의 큰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힘과 의기의 발전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미덥고 씩씩한 젊은 모습들이기에 나는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의 학생 제군에게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렁찬 선서라도 시키고 싶었다.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라고.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그대들의 해야 할 일을 제시해 보았다.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인간상이 그리워서다. 큰 힘의 움직임이 이리도 아쉽구나.

그리고 또 그대들에게 목표를 명시해보았다.

그래 저저분하게 제 한 몸동이의 행복이나 누려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오늘 이 나라의 가난한 현실이 제 먹을 것조차도 챙기기 어렵다 할망정 그렇다고 그것이 대학교육의 고작 큰 목표일수는 없지 않나.

좀 더 멀리 보라, 좀 더 크게 보라, 겨레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고구려때 진각국사의 글귀 속에 광원(廣遠) 두 자가 있느니. 널리 아득한 길에서 해매는 창생들을 건져 멀리 저쪽 언덕에 까지 실어다 놓아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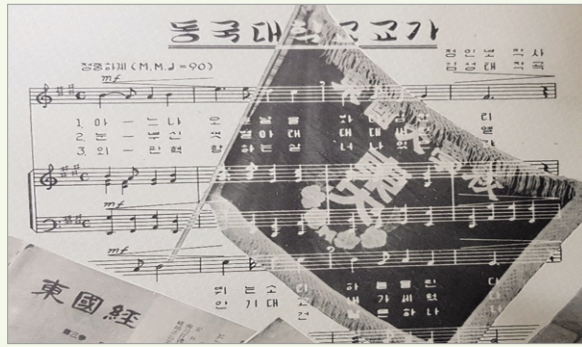
그것이 ‘광·원’ 두 자의 뜻이다. 좀 더 멀리 보라. 좀 더 크게 보라. 이 마지막 두 줄이야말로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선서인 동시에 작사자의 축복이기도 한 것이다. (1964년 2월, 동대신문 249호에서 옮김)

#### 노산 이은상 (1903~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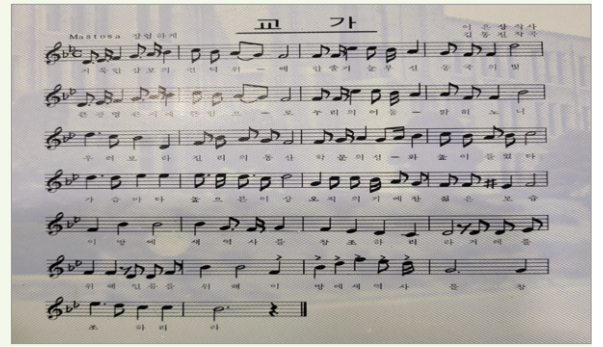
가곡으로 작곡되어 널리 불리고 있는 ‘가고파’ ‘성불사의 밤’ ‘옛동산에 올라’ 등의 시조를 쓴 시조시인. 예술원 공로상, 5·16민족상 학예부문 본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생들.



▲ 두 번째 교가.



▲ 세 번째 교가.

### 교가 변천사

#### 첫번째 교가

최초의 교가는 중앙불전 당시 조선 종교사와 조선어학 강의를 맡고 있던 六堂 崔南善 선생의 작사로 1930년 가을에 제정되었다.

惠化의 집은 숲과 쌍계 맑은 샘  
우리의 聖胎담아 높은 집 있다  
大界가 다 한가지 東方을 볼 때  
하고 한 빛이 서려 거기 넘치네  
우리 불교전문학교  
久遠의 힘, 구원의 빛

#### 두번째 교가

두번째 교가는 해방후 혜화전문학교에서 1946년 동국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爲堂 鄭寅普 선생이 짓고, 김성태 선생이 작곡했다.

아-느냐 오늘날을 보라 삼천리  
젊은 피 뛰는 소리 하늘 울린다  
백두산 동해물을 예서 빛내여  
이 나라 이 겨레의 복터 되거라  
뚝어라 쇠-돌도 나가자 물에 불에  
태극기 중천에 솟으니  
아- 우리 동국대학



### 작곡 김동진의 변

## 의기에 찬 젊음의 행진 장엄한 校運 빛내기를

이은상 선생이 작사하신 이 교가를 나는 몇 번이나 읽고 어떻게 곡상을 구상할까 생각했다. 교가는 그 학교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노래다. 물론 가사 자체가 벌써 표현하고 있지만 곡을 잘못 붙이면 가사는 죽어 버린다. 나는 가사에 충실하여 이 학교의 종교적 전통을 살리며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 창조에 힘찬 행진을 노래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이 곡은 전체적으로 엄숙한 가운데 장엄하고 씩씩한 기상이 내포되었다. 음악적으로 보면 세부분으로 되었다. 처음부터 8소절까지는 높이 세운 등대와 같이, 불타는 햇불같이, 높이 세워있는 학교의 위풍과 이상이 장엄한 리듬으로 표현되었다.

다음 16소절까지는 감격과 엄숙한 종교적인 곡상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다음 26소절까지는 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새 역사를 창조하여 나가는 젊은 세대의 장엄한 행진을 표현한 것이다.

음악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직접 노래를 부름으로써 더 음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校運이 빛나기를 바라며 작사와 작곡가의 의도를 살려 좋은 교가가 되도록 많이 불러 주기를 바라며 훌륭한 교가가 되어 학교를 빛내줄 수 있다면 여기서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동대신문 249호에서 옮김)

#### 김동진 (1913~2009)

국민 누구나가 평소 즐겨 부르는 가곡 '봄이 오면'과 '가고파'를 작곡한 한국의 대표 작곡가다. 예술원 회원, 서라벌예술대학 및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3.1문화상,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했다.

### 교가의 추억 - 이구용 동문

## “작사·작곡 원고 직접 받아왔다”

현재의 교가를 작사한 노산 이은상 선생님과과의 인연은 1963년 동대신문 학생기자 시절 김법린 총장님의 지시로 교가 원고를 받으러 안암동 로타리에 있던 선생님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가 처음이었다. 좀 쌀쌀한 초겨울 날씨였는데 낯선 이의 방문을 예상하셨던 듯 안방에서 한복차림으로 나오신 선생님은 기자(이구용, 영문62)를 양지바른 마루에 앉으라고 하시고는 손수 200자 원고지에 적으신 가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 나중에 누상동 인왕산 자락에 사시던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댁도 찾아가서 악보를 받아왔다.

그날 노산 선생님댁을 나오면서 펍 자상하시던 생각을 했다. 그때 인연이 되어서인지 그 후에 다시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던 건 1971년 저의 渡美로 인해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은상 선생님이 한국산악회 회장을 하실 때 전국등산대회와 전국명산순례 행사의 임원으로 진행을 도울 때였다. 한국산악회와 연계된 작은 모임으로 대학산악부OB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KCC(Korean Climbers Club)의 총무를 맡았던 연고로 산악회의 행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먼 외국에서 부르는 교가는 더욱 정겹고 향수를 불러온다. 1970년대 초반에 뉴욕의 동문들이 모여서 교

원 박사(부루클린대학 교수)를 주축으로 뉴욕동문회가 구성되었다. 유영수, 이종대, 배시영 선배님 등과 그때 뉴욕에서 최초의 불교사원인 원각사를 여신 前 모교 부총장 오법안 스님 등의 후원으로 모두들 이민생활에 바쁜중에도 끈끈한 유대를 맺게 되었다. 동문회 행사 때마다 2대 총무를 맡았던 저에게 들어오는 주문은 유일하게 새 교가를 아는 사람이므로 교가를 부르라는 거였다. 자의반 타의반 솔로리스트가 된 경우였다.

이 글을 멀리 뉴욕에서 적게 된 계기는 저의 동대신문사 선임이신 송재운(철학60, 동국대 명예교수) 선배님과 늘 인터넷으로 소식을 나누던 중 며칠전 보내 주신 '노산선생 일대기'를 보고 불충하게도 오래 잊고 있었던 노산 선생님이 그리워 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세기가 훌쩍 넘은 옛날 학창시절에 노산 선생님의 외우이신 '인간국보' 무에 양주동 교수님께 영수필 강의를 들었던 추억까지 오버랩되었다. 그 때 한 강의실에서 수업 받았던 친구들과 모교에서 다시 만나 교가라도 한 번 불러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총동창회 소통과 홍보 위한 '홈페이지' 오픈

## 총동창회 역사 (5)

[2006년] 2월6일 류주형 총동창회장이 23대 회장 임기 시작 8개월만에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다.

2월21일 제3회 동국포럼이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1회 포럼은 지난해 10월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2회 포럼은 지난해 12월13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초청해 열렸다.

### 주요인사 초청 동국포럼 개최

3월21일 홍기삼 모교총장, 5월23일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9월8일 김진선 강원도지사, 10월19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11월28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차례로 초청해 포럼을 이어갔다.

3월21일 산악그랜드슬램 세계 최초 달성 박영석(83체교)동문 동판부조 제막식이 모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열린다.

3월30일 임원 선거법 및 선거시행세칙 위원회가 열려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다.

4월10일 정재철, 황명수 전 회장이 주최한 임시 이사회 및 총회가 엠배서더호텔에서 열려 류근창 고문을 회장으로 추대하다.

4월18일 2006년도 1차 임시 이사회 및 총회가 타워호텔에서 열려 원용선 전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하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동창회 발전의 새 전기가 될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통과,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 제정위원장=김익상 변호사, 위원=윤천영 박도근 한우삼 조창현 남기일)

4월27일 원용선 회장, 정재철 전 회장, 류근창 고문, 홍기삼 총장, 정성전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하여 원용선 회장을 중심으로 동국발전을 이룰 것을 다짐하다. 이로써 보름여동안 하나의 동창회, 2명의 회장이라는 불명예와 갈등을 봉합하다.

5월8일 건학100주년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된데 이어 건학100주년 자축리셉션을 총동창회 후원으로 엠배서더호텔에서 갖다.



▲ 23대 원용선 회장



▲ 24대 전순표 회장

5월9일 건학100주년을 기념한 KBS열린음악회가 대운동장에서 대성황리에 개최되다.

5월13일 홈커밍데이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를 모교 캠퍼스 일원에서 갖다.

5월31일 제4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명(김진선 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 10명이 당선되다.

6월7일 장성 출신 동문 초청 모임을 남산 타워호텔에서 갖다.

7월7일 동문간 소통과 상생 일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케이션인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오픈하다.

9월6일 모교 야구부의 제61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우승 축하연을 갖다(엠배서더호텔)

10월21일 모교 일산병원 개원 1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병원 방문의 날' 행사를 열다.

10월24일 모교 '동국의 종' 종각 아래에 세워진 '동국100년비' 앞에서 타임캡슐 봉안식을 갖다.

10월31일 김희옥 헌법재판관 취임 축하 및 로스쿨 유치 기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다.

### 전순표 6억·문태식 5억·구자선 2억 등 동창회관 건립 기금 모교와 공동 보관

[2007년] 1월16일 회장단 신년교례회에서는 동창회관 건립기금 통장 및 관련서류를 사무처에서 관리하도록 결정하고, 그동안 봉사해온 장동락 모금위원장(2003~2006년)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3월21일 새로 취임한 오영교 모교 16대 총장을 초청해 '동국의 혁신방향과 미래'를 주제로 동국포럼을 개

최하다.

3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원 선거규칙 관리 중점사항을 논의하다. (위원장=조창현, 부위원장=손학중, 위원=위종성 김대식 강영규 김진억 김창규)

4월26일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준우승을 격려하는 '야구인의 밤'이 엠배서더호텔에서 열린다.

5월25일 24대 총동창회장 추대를 위한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개시하다.(위원장=조문영, 부위원장=장장순, 위원=윤천영 장수정 이재형 조창현 전영화)

7월18일 제10차 총동창회장 추대위원회의를 열고 차기 제24대 총동창회장에 전순표(53/57농학) 동문을 추대하기로 결의하다.

7월18일 신정아 학력위조 교수 채용관련 회의 및 모교 대책 촉구차 총장실을 방문, 항의하다.

7월30일 회장 추대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합동 회의를 열어 회장 이·취임식 준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다.

8월23일 임시이사회 및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전순표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갖다. 감사로는 박충환(55경제) 오홍명(62농학) 강영규(70경영)동문을 선출하다.

8월24일 재단법인동우장학회 2학기 장학금으로 19명에게 각 100만원씩 수여하다.

10월1일 제1차 상임부회장단 회의 및 위촉장 수여식을 엠배서더호텔에서 갖다. 이와 함께 동창회관 건립 추진위원 5명을 위촉하다. △상임부회장=조문영 외 18명 △동창회관 건립 추진위원 =정인악 송석환 김진문 서영준 구자선

10월29일 제24대 동창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장에서 사무총장으로 격상한 본회 사무총장에 이운영(66/70농학)동문이 임명되었음을 보고하다.

11월8일 25만동문들의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임용택, 동국대학교 총장 오영교, 동국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전순표 3자 간에 '동창회관 건립에 관한 기본합의서' 서명식을 갖다. 기본합의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소유의 일정 공간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입주하여 제공된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가칭) 총무로영상센터(소재지: 서울 중구 필동2가 82-

# 아름다운 동행 ~ 빛나는 동국 ~

## '동국장학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

세제혜택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100만원 이상 납부하신 장학위원은 '총동창회 명예전당'에 현액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장학금을 후원할 차례입니다.  
매월 1만원 이상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500분을 모십니다.

후원에 동참하실 동문께서는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동창회 문자전용 스마트폰(010-3731-3991)으로 보내주시거나  
장학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장학계좌 (예금주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 국민은행 : 501601-01-141914
- 우리은행 : 1005-603-886719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동창회 사무처 (02-733-0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대학·동창회간 동창회관 건립 합의서 체결

1번지)내의 일정공간 및 시설 (1개층, 500평 규모 예상)을 영구 무상으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에 할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곳의 일정공간과 시설을 제공한다"고 명기했다.

11월13일 전순표 총동창회장은 6억원을 11월8일 학교법인·대학·총동창회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모교와 공동 보관하다.

11월16일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 전순표 총동창회장, 유광진 상임부회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다.

11월21일 문태식 아주산업 명예회장, 동창회관건립기금으로 5억원을 모교와 공동 보관하다. 모교에서 대학 발전기금 조성 행사인 'COME TOGETHER WITH - 108프로젝트 발표회'가 신라호텔에서 동문 등 동국가족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리다.

11월26일 구자선 상임부회장, 동창회관 건립기금 2억원을 모교와 공동 보관하다.

12월13일 제36회 동국인의 밤 행사가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에 김희옥 헌법재판관을 시상하다. 한편 동국청우상은 송석구 前 모교 총장이 수상하다.

##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탈락, 요로에 항의

[2008년] 1월21일 전순표 총동창회장, LA동문회 신년회(옥스포드호텔)에 참석하여 이근우 前 LA동문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현지 동문들을 격려하다.

2월1일 모교의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탈락과 관련하여 긴급 임원 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한뒤 전순표 총동창회장과 이운영 사무총장 등이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부당성을 설명하다.

2월11일 전순표 총동창회장, 유광진 학교법인 이사, 정재형 모교 교수회장, 정대진 법과대학동창회장 등 50여명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탈락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2월22일 재단법인동우장학회 1학기 장학금을 20명에게 각 100만원씩 수여하다.



▲ 2007년 11월 8일 학교법인 이사장 영배스님(가운데), 오영교 모교 총장(오른쪽), 전순표 총동창회장이 동창회관 건립 합의서에 서명한뒤 기념촬영을 했다.

3월5일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이사회에서 김동정 이사를 비롯 전순표 흥파스님 구자선 이사가 각각 장학기금 기본자산으로 1,000만원씩을 기부하다.

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상찬 김옥이 김태원 서종표 유재중 이정현 이진삼 조승수 최재성 한기호 홍영표 동문 등 11명이 당선되다.

5월7일 개교102주년기념식에서 새로운 대학통합이미지(UI)를 선포하다. 로고, 색상, 국문·한문·영문 서체, 그래픽 모티브, 현수막 등이 전면 개편 정립되고,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라는 슬로건도 함께 발표되다.

5월8일 개교 102주년 기념 동문친선 골프대회가 3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주 스카이밸리CC에서 열리다 (우승 양승용)

5월28일 제70차 정기이사회 및 제27차 정기총회가 열려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축하패를 전달하는 한편, 회비납부 우수학과를 시상하다(1위=농학과, 2위=경제학과, 3위=법학과동문회)

8월22일 재단법인동우장학회 2학기 장학금으로 서울캠퍼스 12명, 경주캠퍼스 8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다.

10월24일 모교에서 대학발전기금 기부자를 기리는

명예의 전당을 대학 본관 로비 벽면에 설치하고 개관식을 갖다.

10월31일 경주캠퍼스 창학30주년 비전 선포식(현대호텔) 및 동국인 친선골프대회(보문CC)가 열리다.

12월11일 제37회 동국인의 밤 행사(엠베서더호텔)를 열고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에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박준형 신라교역 회장, 조정래 태백산맥 작가를 시상하다. 동국청우상은 여류시인 문정희 동문이 수상하다.

## 회관·발전·장학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2009년] 2월20일 재단법인동우장학회 1학기 장학금으로 서울캠퍼스 12명, 경주캠퍼스 8명에게 각 100만원씩 전달하다.

5월11일 모교 개교103주년 기념 동국인 친선 골프대회를 여주 금강CC에서 개최하다(우승 조현철)

5월13일 제71차 정기이사회 및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자(홍영표, 조승수) 및 농림수산물부 1차관 민승규, 2차관 하영제 동문에게 취임 축하패를 수여하다. 회비납부 우수학과인 1위=경제학과, 2위=법학과, 3위=농학과동문회에 각각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하다.

5월25일 입학30주년기념 79학번 동문재상봉 행사(추진위원장 조기식)가 캠퍼스 일원에서 열리다.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첫 테이블을 끊은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불상 주변 팔정도에 '추억의 순간들 사진'과 '동그라미' '그리고 그림' '만화열' 등의 전시도 동시에 이루어지다. 중강당에서 환영공연, 총장 환영사, 동창회장 축사, 추진위원장 답사, 09학번 학생대표 인사, 감사장 수여, 동문 재상봉기 이양, 응원 한마당 순의 본 행사를 마친 79학번들은 명진관 앞 단체사진 촬영, 상록원 만찬 및 축하공연을 이어갔다.

7월1일 총동창회관내에 회관건립·발전·장학기금 기부자들의 명단을 담은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다. 고액 기부자인 전순표, 문태식 동문은 홍상을, 구자선, 류주형, 박준형 동문은 얼굴 부조를 제작해 헌액하다.

〈신관호·동창회보 편집주간〉

## 내 생애 최고의 만남!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



**회비는 1년에 한 번,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발전합니다.**

- 일반회원 : 3만원 (평생회비로 납부시 50만원)
- 고 문 : 1백만원 이상
- 부 회 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이 사 : 10만원

■ 송금계좌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국민은행 : 006001-04-237869
- 농 협 : 301-0171-1030-01
- 신한은행 : 100-030-783610
- 우리은행 : 1005-302-718184
- 하나은행 : 150-22-01536-0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 (02-733-0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 'A등급'

## 교육혁신 프로그램 기획 과정 등 우수 평가

모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연차 평가 및 2019~2020년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9월17일 밝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1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연구재단의 2차년도 평가 의견에

따르면, 1유형(자율협약형) 수도권에 속한 동국대는 교육혁신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과 산출 성과 모두 체계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전공 교육 인증제도 및 EduTech 기반 혁신 교수법 프로그램의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한편 모교는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인 약 5억 원을 더 지원받아, 1차년도 사업비 약 52억 원보다 12억 원이 늘어난 약 64억 원의 3차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선정

## 4년간 95억원 ... 청년창업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모교(총장 윤성이)와 서울 중구(중구청장 서양호)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돼 4년간 최대 9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대학과 자치구가 협업해 캠퍼스타운을 조성, 청년창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Hi 동국, Hello! 중구, DJ VISUAL Campus'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중구 캠퍼스타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동국대-중구 컨소시엄은 낙후된 도심 제조 산업에 디지털기술을 융합해 중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국대-중구 컨소시엄은 'HAI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활성화, 'HELLO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모교는 대학 특성화 분야인 △디지털 신기술융합 △문화콘텐츠 △소셜 분야 창업을 지원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중구청은 △중구 도심산업박람회 △혁신창업플랫폼을 지유니크팩토리 운영 △마을기업 육성 등 중구 재정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대형 R&D사업 수주액 역대 최고

모교 연구처(처장 임대운)는 2021년 상반기 대형 R&D사업 수주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7월21일(수) 밝혔다. 상반기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73억 원에 달한다.

이중 신규 수주액만 406억 원을 넘는다. 특성화 분야별로는 ▲불교&문화 103.2억 ▲바이오&메디 109.7억 ▲D.N.A 132.9억 ▲Safety&Security 60.6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수주 내역은 불교&문화 특성화 분야에서는 불교학부 김종욱 교수, 가정

교육과 정주원 교수 순으로 높은 금액을 수주했다. 바이오&메디 특성화 분야에서는 의학과 김동역 교수, 약학과 권경희 교수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D.N.A 특성화 분야 수주액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김흥수 교수, 물리반도체과학부 임현식 교수 순으로 높았다.

Safety&Security 특성화 분야는 멀티미디어공학과 박진호 교수가 가장 높았고, 경찰행정학부 조은경 교수가 뒤를 이었다.

#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통과

서울 및 경주캠퍼스 모두 교육부가 실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통과되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모교에서 9월16일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여건 △학사관리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할 요소들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정책이다. 이번 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교는 비전 실현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비해 교육의 질 관리 전담기

구인 교육혁신처를 신설했다. 또한 미래형 학사제도 개선 및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IR팀)도 새롭게 만들고 대내외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 소통공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구성원 참여·소통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모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 서울·경주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

##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



▲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

모교(총장 윤성이)는 9월14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출범 이후 동국대학교 법인 산하기관 중에는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처음이다.

위원장을 맡은 윤성이 모교 총장은 “한국불교의 위기는 곧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동국대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건학위원회 출범이 불교계와 동국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건학위원회 증명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송고하고 아름다운 건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다짐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고문으로 추대된 성우스님은 치사를 통해 “건학위원회는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분에게 동국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9월 중 ‘종립대학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지

식인 양성’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서 인류사회 공헌’이라는 목표 아래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16일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경주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 전자계산원, 'DUICA'로 개명

학교법인동국대학교는 8월3일 이사회를 열고 법인산하 전자계산원(전산원)의 명칭을 'DUICA(동국대 핵심역량교육원)'로 새롭게 변경했다. 1975년 설립된 전산원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설립 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산원은 1975년 정보처리 관련 2년 과정으로 시작돼 현재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됐지만, 그간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 때문에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 학교법인 동국학원 인수합병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성우스님)는 9월30일 모교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태관스님)과 인수합병 협약을 체결했다.

# 올 8월 교수 16명 정년·명예퇴직

모교에서 후진양성과 대학발전에 헌신해온 교수들이 8월31일자로 서울캠퍼스 10명, 경주캠퍼스 6명이 정년 및 명예 퇴직했다. 이들 퇴임교수들은 학칙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모교 명예교수로 위촉된다.

### 서울캠퍼스 퇴직교수

〈정년퇴직〉 △다르마칼리지 봉일원(1994.3.1. 부임, 문과대학장 역임) △국어국문예창작학부 장영우(1997.9.1. 부임, 문화학술원장 역임) △중어중문학과 오태석(1995.9.1. 부임, 문과대학장 역임) △법학과 박선영(2007.10.26. 부임) △경제학과 송일호(1995.9.1. 부임,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역임) △경영정보학과 이종욱(1990.1.1. 부임, 정보관리실장 역임) △식품생명공학과

김왕준(2006.9.1. 부임, 식품과학부 책임교수 역임) △교육학과 김성훈(1993.9.1. 부임, 교무부총장 역임) △국어교육과 고재석(1996.3.1. 부임, 홍보처장 역임)

〈명예퇴직〉 △영화영상학과 정재형(1991.9.1. 부임, 예술대학 겸 문화예술대학원장 역임)

### 경주캠퍼스 퇴직교수

△인문콘텐츠학부 강문호(2000. 부임, 학생처장 역임)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이용역(1994. 부임, 바이오융합연구원장 역임) △조경학과 홍광표(1984. 부임, 기획처장 역임) △행정·경찰공공학부 박병식(1987. 부임, 사회과학대학원장 역임) △경영학부 박상범(1984. 부임, 경영대학원장 역임) △유아교육과 권은주(1990. 부임, 사범교육대학장 역임)

# 사범대학장학금 1억3천만원 쾌척

## 권오춘 동문, 누적 기부금 112억원 넘어



초허당 권오춘(영문59) 모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가 7월 27일 '초허당사범대학장학금' 1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8월 27일 3천만원

상설전시관'에서 전시 중이다.

한편 예술의전당 창작지원금 4억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1억 원을 더한 권 교수의 개인 누적 기부액은 총 11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예술위원회(ARKO)로부터 2019 대한민국 예술후원인 대상(개인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을 추가 기탁했다.

초허당사범대학장학금은 이번 2학기에 사범대학 7개 학과에서 7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권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현금과 부동산, 미술품 등 총 112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기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허당기회장학금'은 이과대학 6개 학과에서 학기마다 각 6명씩 총 12명을 선발, 2005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초허당특별장학금'을 신설해 12개 단과대학에서 12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 교수가 기증한 미술품 300여 점(82억 상당)은 일산캠퍼스에 전시되고 있다. 이 중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김환기, 김기창, 박노수, 박서보의 작품은 '초허당

### 미래융합대학원 신설

모교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성인학습자 평생교육체제 정착 및 확산을 목표로 미래융합대학원을 신설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윤성이 총장은 “상담 및 코칭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실무적인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상담코칭 전문가' 제도를 개발,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가 인증을 통한 학문적·실무적 활용을 목표로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담 및 코칭에 관심 있는 군인 및 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 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모집인원은 40명이다.

###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 장학금

- △온의예보살(법명 덕운화) = 덕운화장학금 1억원(9월16일)
- △하현(보그인터내셔널 대표) = 국제정보대학원 장학금 3천만원(7월8일)
- △주석스님(선학01, 대운사 주지, 문화예술사단법인 KUmuda 이사장) = 예술대학 장학금 1천만원(4월20일)
- △경주캠퍼스 디자인미술과 오창린 학과장 외 = 시각디자인전공 제자사랑 장학금 6백만원(6월15일)
-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예주) = 1천만원(9월27일)

#### 발전기금

- △경우스님(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 법인발전기금 3천만원(4월)
- △미래융합교육원 인문문화예술최고위과정(봉유종 송파구상공회장, 무궁화신탁 권준명 대표, 아남항공 이인재 회장, 빅스로지텍 손정열 대표, 올스타마트 손기철 대표) = 3천만원(5월6일)
- △김일현(제이앤아이씨티 회장) = 대학원 발전기금 2천만원(6월28일)
- △조택래(태남그룹 회장) = 대학원 발전기금 2천만원(7월12일)
- △이재동(태금 대표이사, 불교문화대학원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경주캠퍼스 불교문화 발전기금 2천만원(9월6일)
- △조시영(대창 회장) = 대학원 발전기금 2천만원(8월10일)
- △남궁원(에코누리시스템 대표) = 1천1백만원(8월9일)
- △변춘방(세종여주병원장) = 대학원 발전기금 1천만원(7월12일)
- △한희원(동국대 대학원장) = 대학원 발전기금 1천만원(7월12일)
- △김태호(철학89, 불가리아나눔발전소 대표) = 1천만원(6월15일)
- △조경학과 91학번 동기일동 = 입학30주년기념 학과발전기금 1천만원(6월18일)
- △박태영(조경81, 서현개발 대표) = 조경학과 발전기금 1천만원(6월18일)
- △박병현(조경11, SK임업 대리) = 조경학과 발전기금 1천만원(6월18일)

#### 동국 문학인 장학 릴레이

- △임정섭(삼민화학공업 회장) = 2천만원(7월6일)
- △진동현(경기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 1천만원(4월19일)
- △손익한(건축사무소 마이스페이스 대표) = 1천만원(6월14일)
- △이한철(창성종합건설 회장) = 1천만원(8월17일)
- △남시환(오성회계법인 대표) = 1천만원(9월14일)

### 전주대학교 15대 총장 홍순직 동문



홍순직(경영66)동문이 전주대학교 1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지난 7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주대학교 제15대 총장에 홍순직 현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을 내정했다. 이사회는 홍순직 총장을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 마인드로 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해서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해 각자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대학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서 교육만족도 1위 대학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여년 동안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하다 1995년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로 입사해 삼성자동차(주) 전무, 삼성SDI(주) 부사장 겸 삼성미래전략위원회 부사장 등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도 역임했다.

### 동국문학상에 김창범 김택근 성낙주 동문



▲ 김창범 동문



▲ 김택근 동문



▲ 성낙주 동문

동국문학인회(회장 장영우, 동국대 명예교수)는 2021년 제34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김창범(국문67), 산문 부문에 김택근(국문75), 소설 부문에 성낙주(국문76) 동문이 선정됐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김창범 동문의 시 ‘운현궁을 지나며’ 외 3편, 김택근 동문은 산문집 ‘성철 평전’, 성낙주 동문은 장편소설 ‘차크라 바르틴’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지금까지 시인 신경림 박제천 윤제림 공광규 이해선 허진석, 소설가 조정래 이상문 정찬주, 문학평론가 홍기삼 유한근 장영우 송희복 등이 동국문학상을 받았다. 올해 심사위원은 박제천 이상문 이해선 이용범 작가가 맡았다.

동국문학상은 동국대학교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동국문학인회가 제정·운영하는 상으로 등단 이래 작품활동이 우수한 동국대학교 출신 문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코로나로 연기된 시상식은 오는 10월 중에 가질 예정이며 ‘동국시집’ 제48집 출판기념회도 겸하게 된다.

### ‘자비의 쌀’ 14년째, 원법사 해운스님



해운스님(불교11, (사)대한불교 서명종 원법사 주지)는 9월9일 경북 포항시청을 방문해 “태풍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백미 10kg 1100포대(3300만원 상당)와 수해성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해운스님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자비의 쌀’ 나눔행사를 통해 백미를 기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4년 간 총 1만1천300여 포의 쌀을 시청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해운스님은 “지난 2008년 쌀 1만포를 목표로 기탁을 해 왔는데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쌀 나눔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와 성금은 최근 태풍 등으로 수해를 입은 구룡포읍, 죽장면 등 16개 읍·면·동과 지역 내 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되었다.

해운스님은 “지난 2008년 쌀 1만포를 목표로 기탁을 해 왔는데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쌀 나눔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와 성금은 최근 태풍 등으로 수해를 입은 구룡포읍, 죽장면 등 16개 읍·면·동과 지역 내 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되었다.

본인 또는 주변동문 동정 등 각종 소식을 알려주세요

E-mail : dongguka@naver.com

### 취 임 · 영 전

#### 조계종 균종특별교구 5대 교구장



선일스님(인도철학 73, 인천 법명사 회주)이 조계종 5대 균종특별교구장으로 7월23일 취임했다. “1979년 해군법사로 임관해 85년

까지 군 포교 현장을 다니며 군포교에 대한 원력을 잊지 않고 있었다”며 “전임 교구장 스님이 했던 일들을 이어 계룡대 홍제사 불사를 마무리하고 군장병 행복과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이은기(법학73, 변호사, 前 서강대 로스쿨 교수) 동문이 8월3일 제9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

관여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 전북적십자 사무처장

권영일(회계82)동문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신입 사무처장으로 7월5일 부임했다. 1997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 본사 감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 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찬규(정외83)동문이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입 사무총장으로 7월13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7월12일까지 3년이다. 모교에서 학사 및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략홍보실장 등으로 활동했다. 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법정 공공기관이다.

####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이대성(회계84)동문이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으로 7월26일 부임했다. 1991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해 청주서지점장과 홍보실장, 비서실장, 영등포지점장 및 ICT 전략부장을 거치며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속초세무서장



김승현(행정87) 동문이 속초세무서장으로 7월1일 부임했다. 7급 공채로 1995년 개포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해 서울청 국제조사2과 팀장, 기재부 파견 근무, 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2팀장 등을 역임했다.

####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설세훈(교육87) 동문이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으로 7월26일 취임했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 이후 교육부 운영지원과장과 목포대 사무국장,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대학학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이창한(경행90,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동문이 9월1일 제13대(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재)한국소년보호

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 숙식제공, 장학·원호, 직업훈련 등의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 서울지방국세청 승무1과장



최원봉(경영92)동문이 서울지방국세청 승무1과장으로 6월25일 전보됐다. 행정고시 47회로 국세청 차세대 국제행정시스템추진

단 차세대기획 사업총괄, 원주세무서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반포세무서장 등을 지냈다.

### 수 상

#### 아시아 최초 ‘영국 대거상’

윤고은(문예창작, 소설가) 동문의 장편소설 ‘밤의 여행자들’이 7월2일 영국 추리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거상 번역추리소설상을 받았다. 대거상은 영국추리작가협회가 1955년 제정한 권위있는 추리문학상으로 매년 11개 부문에서 시상하며, 미국추리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에드거상과 더불어 영어권 양대 추리문학상으로 꼽힌다.

### 전 시 회

#### ‘미디어 애니아트전’ 개최



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스님(인철67, 은해사 조실)은 모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예술로 읽는 북한미술

작품·문화재사진 미디어 애니아트전’을 9월24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제4전시장에서 열었다.

애니아트전은 법타 스님이 소장 중인 김기만, 오영성, 정창모, 선우영 등 북한 유명작가의 미술작품 30여점과 북한에 산재된 문화재 사진 20여점이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경찰청 고위 간부 인사

서울경찰청장 최관호 동문



최관호(경행84)동문이 7월7일 치안정감 인사에서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에 올랐다. 경찰 조직 내 '기획통'으로 꼽히는 최 동문은 제39기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들어왔다. 경정 시절 경찰청 기획 업무를 담당한 뒤 2009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전남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부산경찰청장 이규문 동문



이규문(대학원 박사)동문이 부산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경찰대학 4기로 1988년 경찰에 입문했으며,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시작으로 경기경찰청 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경찰청 수사국장, 대전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을 역임했다.

경무관 인사



윤명성 (박사과정)
세종시경찰청장



이재영 (박사과정)
경찰청 치안정책관



유윤중 (박사과정)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총경 인사

- 강석현(경행82) = 인천경찰청 형사과장
김난영(경행82)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이규하(경행82) =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민(경행82) = 전북 남원경찰서장
구자면(경행84)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김신조(경행85) = 전남 진도경찰서장
임실기(경행85) = 인천 서부경찰서장
황석현(경행85) = 세종경찰청 수사과장
오충익(경행86) =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장원석(경행86) = 부산 중부경찰서장
고영재(경행87) = 전남 고흥경찰서장
김선섭(경행87) =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김택수(경행87) = 경북 예천경찰서장
김평일(경행88) =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협력과장
박현규(경행88) =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류경숙(경행89) =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여진용(경행89) = 서울 동작경찰서장
이용관(경행90) = 광주경찰청 경비과장
임옥성(경행90) = 인천경찰청 교통과장
박삼현(경행91)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김기현(경행92) = 서울 강북경찰서장
김경열(경행92) = 세종 남부경찰서장
이창열(경행94) = 제주경찰청 공공안녕정보과장
지지환(경행94) = 충남경찰청 교통과장
박영수(전자83) =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이재경(대학원박사) =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녕정보의사과장
김형섭(행대원90)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장종근(행대원03) = 울산경찰청 형사과장

경기남부경찰청 검시조사관 합격

△한단비(경찰사법대학원17기) △황동경(경찰사법대학원18기)

경찰청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 합격

△홍동규(제주경찰청) △이수경(강원경찰청) △김현지(전남경찰청)
△김채원(충북경찰청) △오경일(전북경찰청) △이은화(경기북부경찰청)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동문 15명 임명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모교 경찰 행정학과 이창한 교수 등 동문 15명이 임명됐다. 이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서울특별시]

△장전배(대학원 박사)
△김성섭(대학원 박사,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이창한(경행90, 동국대 교수)

[대구광역시]

△허경미(경행83, 계명대 교수)
△김상운(경행92, 대구카톨릭대 교수)
△박동균(행정86, 대구한의대 교수)

[인천광역시]

△반병욱(경행76,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대전광역시]

△이상훈(경행84, 대전대 교수)

[세종자치시]

△곽영길(대학원 박사, 충남도립대 교수)

[경기북부]

△정용환(대학원 박사과정)

[충청북도]

△윤대표(경행72, 교수, 영동대 교수)

[충청남도]

△김석돈(행정대학원 석사)

[전라북도]

△박상주(대학원 박사, 우석대 교수)

[경상남도]

△김진혁(경행88, 경남대 교수)

△윤창수(경행76)

상반기 주요 문예지 신인상 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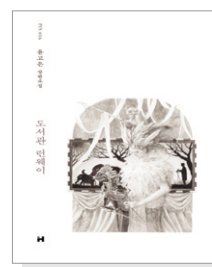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동국문학'이 2021년 상반기 주요 문예지 신인상을 석권했다.

△예소연(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수료, 본명 전소연) = 현대문학 신인상 소설 부문
△남현지(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 창작과 비평 신인상 시 부문
△성혜령(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수료, 본명

이혜령) = 창작과 비평 신인상 소설 부문
△김주원(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졸업, 본명 김은석) = 창작과 비평 신인상 평론 부문
△변윤제(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본명 이상우) = 문학동네 신인상 시 부문
△나인경(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졸업, 본명 소혜령) = 문학동네 신인상 소설 부문

신간안내

도서관 리뷰이



소설가 윤고은(문예창작99) 동문이 '안심 결혼보험 약관집'이라는 색다른 소재를 다룬 장편소설 '도서관 리뷰이' (현대문학)를 최근 펴냈다. 그는 전작 '밤의 여행자들' (2013년)에선 재난 여행 프로그램을, '1인용 식탁' (2010년)에선 혼자 식사하는 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신작에서 윤 작가는 영원한 사랑의 서약으로 여겨지는 결혼을 소비상품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현대사회에서 결혼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했다.

(현대문학 / 1만4천원)

3단계 간단한 레시피 하루 한 끼 다이어트 도시락



최승주(교육82) 동문이 '3단계 간단한 레시피- 하루 한 끼 다이어트 도시락'을 펴냈다. 한 끼로 충분한 샐러드 도시락, 빵순이를 위한 샌드위치 도시락, 한 그릇에 맛과 영양을 다 담은 별식 도시락, 밥과 반찬을 따로 담은 기본 도시락 등 다양한 메뉴를 담았다. 현미, 귀리, 퀴노아, 곤약쌀 등 다이어트에 좋은 재료로 밥 짓기, 오래 두고 먹기 좋은 저장 반찬, 후다닥 만드는 스피드 반찬 등 다이어트 도시락에 알맞은 밥과 반찬 레시피를 담았다.

다이어트 도시락을 빨리 맛있게 싸는 요령, 다이어트를 돕는 재료와 음식, 맛있고 간편한 시판 식품과 소스, 궁금증 Q&A 등 알아두면 좋은 다이어트 도시락 노하우도 알차게 실었다.

(리스크 / 1만5천원)



포장기술의 새로운 변화

식품포장의 **Global HUB!**



| 본 사 |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0, 유상빌딩 | Tel. (02) 2631-0066 | Fax. (02) 2672-1348

**SHG** 주식회사 삼호글라스

삼호판유리(주) | 삼호복층유리(주) | 삼호강화유리(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323번길 17 (구. 이동교리 337번지)  
Tel. 031-542-1888, 031-544-8844 / Fax. 031-542-1887  
E-mail. shglass35@hanmail.net

**PNP** 피앤피화재특종손해사정(주)  
Perfect & Pro Perfect & Pro Claims adjusting Co., Ltd.

PNP손해사정은 정확한 지급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지급을 통한 **고객만족 1위**를 실현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07호 (하왕십리동)  
Tel. 02-736-8732 | Fax. 02-736-8735 | E-mail. kcw5115@naver.com

**대자기업주식회사**

ISO 9001 인증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조 석 규**

(토목 68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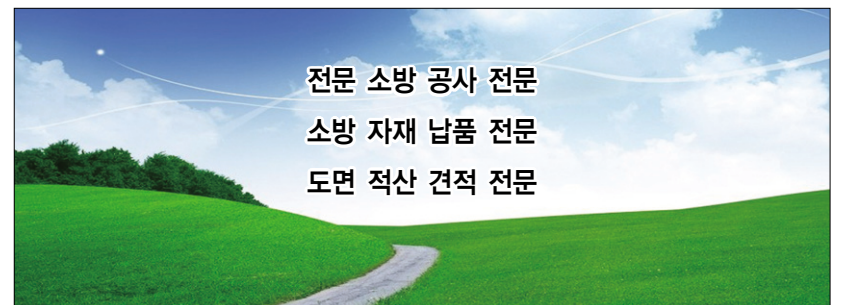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주) 지엘이앤씨**

G.L FIRE-FIGHTING & FIRE-ENGINEERING



대표이사

**이 기 업**

(국민윤리학과 1982)

18384 경기도 화성시 반월길40번길 56 (반월동)  
Tel. 031-267-1195 | Fax. 031-267-1196 | E-mail. leegy77@naver.com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1년 6월 28일 ~ 9월 30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 발전기금 (100만원)



조기중 (전자계산79)  
미국거주 · 사업

## 동국장학회 장학금 (100만원)



공영대 (화학78)  
모교 화학과 교수



이계문 (산공80)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김종필 (행정82)  
내일신문 이사



박태선 (농학82)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회부 납부시 성명, 입학년도, 학과를 표기하지 않아 동문 확인이 안된 분들은 총동창회 전용폰으로 관련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 . 3731 . 3991

## 부회장 회비 (100만원)



고천석 (정치외교76)  
아모레퍼시픽 광남점 대표



김창규 (법학80)  
솔루션합동법률 대표



김태현 (불교84)  
법무법인 창조 실장



박영순 (산대원92)  
前 공무원



박학도 (무역69)  
영암고속 대표이사



이희경 (경찰행정68)  
前 강원경찰청장



최석권 (법학84)  
법무법인 창조 이사



홍기영 (화학공학76)  
영우 회장

### 평생회비 50만원

고숙현 (선학01)  
장광수 (경영80)

### 이사 10만원

강성노 (정치외교71)  
김명희 (미술85)  
김승기 (경영69)  
박학수 (경영64)  
박형배 (전자계산85)  
손규현 (경대원85)  
송철호 (체육교육74)  
송 휘 (서양화3)  
신형철 (체육교육77)  
우진스님 (03대학원)  
이윤영 (토목공학71)  
이철중 (토목공학77)  
임수현 (사회86)  
정상모 (정치외교90)  
정성호 (정치외교97)  
최창영 (법학61)

공덕사 주지스님  
공재현 (무역69)  
관음사 주지스님  
구분홍 (농학68)  
김경오 (지리교육92)  
김기덕 (행정83)  
김대홍 (불대원94)  
김동우 (통계75)  
김동찬 (식품공학78)  
김복희 (경제68)  
김상일 (농학83)  
김석동 (경영68)  
김선재 (국어교육73)  
김성광 (상학65)  
김성광 (상학65)  
김상찬 (전자공학95)  
김승관 (경영80)  
김영식 (경제70)  
김용삼 (경제59)  
김인술 (경대원88)  
김인태 (영어영문57)  
김재완 (인도철학92)  
김중만 (경찰행정65)  
김주승 (상학64)  
김 준 (통계65)  
김준식 (경영83)  
김춘수 (화공81)  
김태환 (대학원 11)  
남윤지 (사회80)  
대용스님 (불대원98)  
대한불교조계종1  
대한불교조계종2  
대한불교조계종3  
대흥사  
동명사 주지스님  
맹주옥 (행정83)

무학사 주지스님  
문승덕 (행대원73)  
민수영 (정치59)  
밀봉암 주지스님  
박광태 (국어국문61)  
박상래 (화학공학80)  
박성일 (언정대04)  
박성준 (행정76)  
박영춘 (전자계산75)  
박지두 (임학67)  
박채삼 (건축공학85)  
박치형 (수학80)  
박형주 (박창주) (경제01)  
배기완 (경영98)  
백기완 (정치외교64)  
백봉흠 (법학57)  
보문사 주지스님  
보선사 주지스님  
보현사 주지스님  
사현스님 (불대원02)  
서동일  
서병구 (상학61)  
송원균 (무역90)  
수덕사 주지스님  
신광사 주지스님  
신동백 (식품공학76)  
신영철 (국어국문57)  
심향사 주지스님  
아림사 주지스님  
안경수 (상학59)  
안대영 (무역학과84)  
안연홍 (연극영화95)  
암도스님 (불교68)  
약천사 주지스님  
엄충식 (식품공학86)

오희영 (조경75)  
옥건호 (식품공학67)  
우근식 (경대원98)  
윤홍사월암  
유관주  
유대건 (경영040302)  
유석천  
유영옥 (국어국문70)  
유지훈 (행정77)  
윤완수 (불교88)  
윤일현 (경영84)  
윤종준 (국사84)  
이관숙 (행대원08)  
이규진 (무역87)  
이규현 (경제61)  
이길자  
이동원 (경찰행정90)  
이맹우 (불대원91)  
이문수  
이병주 (행정78)  
이선재 (전자공학79)  
이성규 (행대원89)  
이성규 (행대원89)  
이순희 (불대원97)  
이승후 (경대원88)  
이열경 (무역70)  
이영규 (수학78)  
이용제 (화학공학71)  
이운길 (경찰행정76)  
이재국  
이정기 (경영94)  
이종연 (농업경제85)  
이주영 (경대원80)  
이주환 (전기공학72)  
이진삼 (행대원91)  
이춘재 (경영89)

이태욱  
이학주 (불교83)  
이해석 (화학79)  
이해룡 (생물56)  
인환스님 (승가75)  
임태진 (경대원18)  
장세용 (회계89)  
장영상 (식품공학66)  
정갑동 (영어영문69)  
정관희 (통계68)  
정도사 주지스님  
정동진  
정병렬 (법학84)  
정수사 주지스님  
정유진 (정보통계03)  
정일주 (문예대96)  
정찬명 (경영59)  
정토사 주지스님  
정토사 주지스님  
정홍락 (대학원 07)  
조성순 (경제81)  
조현철 (상학64)  
주경스님 (불교82)  
진상스님 (승가72)  
차권준 (통계88)  
차대식 (사회과학97)  
채성만 (행대원13)  
천축사 주지스님  
최낙복 (수학교육78)  
최선근 (식품공학82)  
최수경 (한의대95)  
최승원  
최창호 (전자계산74)  
최해영 (경찰행정79)  
최혁지 (법학73)  
태충명 (불대원00)

### 발전기금

동명사 월 2만원  
누계 : 180만원  
조기중 (전자계산79) 100

### 동국장학회

이진혁 (화학75) 월 5만원  
누계 : 470만원  
이성훈 (정보97) 월 2만원  
누계 : 76만원

### 동국장학위원 (신규)

김희배 (공업경영81)  
김찬욱 (산업공학83)  
김은석 (경영09)  
김혜주 (경영19)  
김근석 (e-제너두)  
김병국 (e-제너두)  
김수진 (e-제너두)  
김일만 (e-제너두)  
송동진 (e-제너두)  
이권행 (e-제너두)  
정미정 (e-제너두)

### 상임이사 20만원

김상래 (78경영)  
김춘추 (영어영문74)  
김현권 (경제64)  
김현삼 (영어영문81)  
민래홍 (산업공학83)  
박병은 (영어영문86)  
법현스님 (승가80)  
안정상 (화학공학85)  
오경택 (토목공학74)  
원용근 (경제64)  
임명구 (건축공학89)  
한대현 (경제86)  
현응스님 (불교82)

### 연회비 3만원

가흥우 (언정대96)  
각연사 주지스님 ()  
강경구 (산업기술95)  
강대형 (교대원82)  
강동훈 (언정대00)  
강순돌 (문예대99)  
강윤석 (경영98)  
강익수 (건축공학77)  
강인영 (건축공학81)  
강재홍 (식품공학84)  
강주현 (사회88)  
강중남 (경대원84)  
고승남 (경영84)  
고형중 (국어국문64)  
고홍식 (물리62)

(주)무궁화신탁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21호 (2021.08.11 ~ 2022.08.10.)

#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대표 부동산 신탁



CREATE  
VALUE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